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소식지

The News Letter, College of Pharmac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ttp://altair.chonnam.ac.kr/~pharmacy>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TEL. (062) 530-2900 Fax. (062) 530-2902 발행인 : 김경만 발행일 : 2014년 5월 12일

Message from the Dean

명실 공히 대학과 동문이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상호협력적인 공조체계가 도래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교직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임 안녕하세요?

19대 학장 김경만입니다. 저는 93년도 2월에 약물학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초기 몇 년간은 해부생리학 강의도 함께 하였습니다. 93년에 2학년이었던 동문들과 94년에 4학년이던 동문들은 저와 함께 수업을 하였

지만 그 전의 동문들은 아무래도 낯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2년인가요? 여름에 그 당시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조교로 계시던 오두만 선생님을 찾아뵙고 지금은 사라진 본부 앞의 가정대 건물에서 차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학부생들 실험 실습에 필요하다고 실험노트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 것을 몇 가지 골라서 보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두만 선생님이 제 실험노트를 보고 실망해서 실습에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참고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험노트를 통해서 연결된 비슷한 세대의 전남대 약대인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약대가 2+4년제로 바뀐 후로 올해로 4년제로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전남대 약대는 새로운 학제의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약학대학 약무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임집행부, 모교출신 교수님들, 그리고 특히 약국에서 학생들을 받아주고 도와주신 동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였습니다. 후배를 향한 동문들의 헌신적인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병원약국과 제약회사에서 후배들의 실무실습을 묵묵히 도와주신 모든 동문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대 2+4년제의 실시는 기존의 교육체계 및 학생들의 진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이제는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뿐만 아니라 동문들도 함께 후배들의 교육에 동참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은 학교에서 강의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현장교육은 선배 동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명실 공히 대학과 동문이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상호협력적인 공조체계가 도래한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의 출신, 나이, 배경 등에 있어서 그 분포가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빠지지 않고 당당할 수 있도록 약대 교수님과 선배들의 책임이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셋째, 현재 대부분의 대학원생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에

연구력 증강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갔을 때 추후에 전남대 약대교수는 약대출신이 아닌 화학과나 생물학과 출신 연구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는 약대의 많은 교과과정의 약대출신의 교수가 아니면 다루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후배 동문과 진로 상담을 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러한 점도 주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상당히 다양한 장소에서 제자들의 인사를 받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혹시 옆에 가족이라도 있으면 괜히 우쭐해 지기도 합니다. 그런 날은 집에 와서 전남대에 부임한 이후로 지난 시간들을 회상해 봅니다. 처음 부임해서 몇 년간은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거의 매치시킬 수 있었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머리카락과 더불어 기억력도 사라지고 눈도 침침해져서 이제는 강의실 중간 너머의 학생들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적이 아주 좋거나 나쁘거나 또는 저와 특징적인 기억을 지닌 학생이 아니면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기도 힘들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약대의 모든 교수님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크게 표시하지 않던 이들 학생들이 실제로 class의 중심이었고 약대와 후배들을 이끌어갈 주체라는 것을 말이지요. 선배는 깃발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앞에서 묵묵히 전진하고 있는 선배 동문들이 후배들의 길을 인도하는 우리 약대의 선봉대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머무를 때에는 새벽 즈음에 1층으로 내려가 봅니다. 3-4층과 달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없이 정독실과 사물함이 뻗어있어 들어선 복도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이 전부입니다. 낮에 분주했던 복도와 학생들의 열기로 뜨거웠던 강의실은 정적에 감싸여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환영처럼 오래전에 졸업한 동문부터 최근에 졸업한 학생들까지 왁자지껄하는 웃음소리와 더불어 다양한 표정의 모습들이 보이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오래 전에 이곳을 떠나갔지만 여러분이 머물렀던 이 건물과 장소는 아직도 여러분의 체취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약대 앞 목련이 소리 없이 피었다 조용히 졌습니다. 최근 전남대의 캠퍼스 조경이 무척 좋습니다. 따스한 봄날이나 날씨가 좋은 가을날에 캠퍼스를 한 번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년 봄

약학대학장 김 경 만

학교소식

▶ 2013학년도 학위수여식

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2014년 2월 26일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 2명, 석사 6명, 학사 7명이 학위를 받았다.

▶ 교직원 세미나 및 연수회

교직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대학 발전에 대한 토의를 위해 2013년 8월 12일 교수, 직원 합동 하계 세미나가 화순군 동면 인근에서 진행되었고, 2014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동안 동계 교직원 세미나가 경남 통영 일원에서 있었다.



▶ 실무실습 및 프리셉터 양성교육



지난 2013년 11월 24일 '약무실무실습 지도를 위한 프리셉터 교육'을 추가 실시하였고, 2013년 12월말부터 5주 동안 약학대학 4학년 재학생들은 광주시내 약국에서 약무실무실습을 진행하였다.

▶ 병원약국 실무실습

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 12월말부터 약학대학 5학년 재학생들은 두 개조로 나뉘어 5주 동안 1차 병원약국 실무실습을 진행하였다.



▶ 구오장학회 제 10회 장학증서 수여식

2004년부터 시작된 모교 95학번 남자 동기들이 주축이 된 구오장학회는 2013년 10월 26일 제 10회 구오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구오장학회 회원 및 졸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10기 장학생으로 선정된 나경만, 표새롬 학생에게 각각 장학금 150만원을 수여하고 선후배들 간 교류의 장을 가졌다.

▶ 산소장학금 전달



2002학번 졸업생들이 출연한 산소장학금은 2013년 2기 장학생 김철우, 강은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1백만원)을 수여하였다.

교직원 동정

▶ 이용복 교수

2013년 7월 21일부터 2013년 7월 24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어방출학회 주최 제 40차 총회 및 학술대회와 2013년 11월 10일부터 2013년 11월 13일까지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개최된 미국약학자 협의회 주최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한국약제학회, 한국임상약학회 및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3년 6월 5일에는 전남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용봉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전창주 교수

2013년도에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실무실습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고 2013년 7월 하와이/미국에서 열린 40차 Controlled Release Society(CRS)와 11월 제주도에서 열린 2013 Asian Federation for Pharmaceutical Sciences Conference에서 논문을 발표, 2013년 9월 25th European Conference on Biomaterials (ESB2013) (Madrid/Spain), 8월 KCRS Annual Conference (제주그랜드호텔)와 5월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약물전달시스템 융합연구단 Workshop (서울대 약대)에 참가, 교류하였다. 또한 전남대 치의학대병원에 열린 2013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dvanced Biomaterials and Tissue Engineering (전남대 미래형생체부품소재 RIS 사업단 주관)에서 Advanced Biomaterials session 좌장을 맡아 봉사하였다.

▶ 이광열 교수

2014년 4월 1일자로 교수로 승진발령을 받았다.

▶ 임영준 교수

2014년 3월 1일자로 부교수로 승진발령을 받았다.

▶ 정경희 교수

2014년 3월 1일자로 약학대학 조교수로 임명받았다. 응용 약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이력사항〉

- 1999 학사 동덕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2004 석사 동덕여자대학교 이학석사
- 2007 박사 경희대학교 의학박사
- 2008 ~ 2014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
- 2014 ~ 현재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 신입행정직원

박중희 선생이 2014년 4월부터 근무 중이다.

▶ 신입조교

윤소영, 김지혜 조교가 2014년 3월 1일 자로 발령 받았다.

연구소·사업단 소식

▶ 약품개발연구지 제 22권 발간

약품개발 연구지 제 22권이 2013년 12월에 발간되어 전국 관련 대학 및 연구소에 발송되었다. 발간에 참여하셨던 김권섭, 천승훈, 임영준, 이광열, 전창주 교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전남대학교 약품개발연구소 및 수용체-리간드연구사업단 주관 학술행사

2013년 3월부터 12월 까지 총 2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학생회 소식

▶ 약학대학 학생회 구성

학생회장 5학년 나경만, 학생회 부회장 5학년 김영우 외 10명으로 구성된 제 29대 약학대학 학생회가 출범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즐거운 약학대학을 만들자는 힘찬 각오를 다지면서 2014년도를 시작하였다.

▶ 동아리 '가뫼' 월출산 산행

2013년 5월 두번째 주에 1박 2일 일정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많은 신입생들이 들어온 관계로 야영 대신 월출산 펜션에서 1박 2일을 머물고 월출산의 풍경과 자연을 느끼면서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였다.

▶ '약석' 동아리 하계 무료 투약 봉사

2013년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약석'의 재학생 회원들과 졸업생 회원들이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마을로 무료 투약 봉사를 다녀왔다. 목포대학교 봉사동아리 '약비'와 연합하여 3박 4일간 머무르며 어르신들께 투약봉사, 근로봉사, 교육봉사를 실시하면서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과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친목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동아리 '단향' 장기채집

2013년 11월 15~16일에 전남대학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단향' 재학생들이 생약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채집한 생약표본들의 효능과 유래 등에 대해 설명하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 새내기 배움터

2014년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장성수련원에서 새내기 배움터를 실시하였다. 약학대학 100 강당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은 광주 적십자수련원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앞으로의 학교 분위기를 미리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 약학대학 전체 MT

2014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리산 가족호텔에서 약학대학 학생 총 MT를 실시하였다. 요리대회, 미스전약(여장남자 미인대회), 공포체험 등을 실시하여 약학대학 학생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동문소식

▶ 전남대약대축구모임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신 동문들의 건강과 단합을 위한 축구모임 '전남대약대축구모임'이 신설되어 2009년 6월 14일 제 1회 모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동문 졸업생들께서는 다음 카페에 개설된 '전남대약대축구모임(<http://cafe.daum.net/CNUPsoccerclub>)'을 방문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대 약대 동문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발전기금 안내

여러분들의 관심이 학교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발전기금을 보내주실 분은 530-2953으로 연락바랍니다.

◆ 약학대학 발전기금

광주은행 : 074-107-004336

(예금주 : 전대약학대학발전기금)

◆ 연말정산시 관련법에 의해 기부금 100% 소득공제 (법정기부금임)

전남대 약대 동문 주소록

동문들 간의 원활한 연락 및 소식 전달을 위해 새로운 동문 주소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연락처와 주소를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62) 530-2920 • F A X : 062) 530-2949
- E-mail : je44494@jnu.ac.kr

당신의 간이 침묵할 때
발효율금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5대 질병중 하나 간질환!
지금, 당신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인스팜 발효율금 캡슐, 간 건강을 위한 원료로 인정받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
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한국인스팜(주)의 인스팜 발효율금 캡슐
(개별인정번호: 제2013-4호)

간을 위한 건강술관!
인스팜 발효율금 캡슐 지금 챙기십시오.

인스팜
발효율금
캡슐



율금(鬱金, *Curcuma longa* Linne)이란?

율금은 기원전 600년경 인도에서 사용
되었는 기록이 있으며 서종실록지리지
전라도 구역 순천등지에서 율금을 토산품으로
재배하였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재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가진
전남 진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율금을 왜 발효시키나요?

향과 맛이 민감한 한국인에게 율금 특유의 향과 쓴 맛은 율금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스팜은 오랜 연구를 통해 율금 발효기술을 개발하여
맛과 향을 개선하였습니다.



발효율금의 건강장 연구

전남대학교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발효율금의 간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AST, ALT, 총빌리루빈의 감소가 관찰
되었습니다. (2009)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12주간 상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체실험시
에서 발효율금을 섭취 전후 비교 했을때 AST, ALT의 감소를 확인
하였습니다. (2006)